

### 당인도공의 행패

당인 광명인이 군사 다섯 명을 데리고 최녹천 집으로 왔다. 군사는 광명인의 사병들이었다. 장보고는 광명인이 청해진을 찾아와 최상품의 청자 기물들을 도둑맞았다고 읍소하자 그에게 가마를 지키는 사병을 보내주었던 것이다. 대구소 군사들이 있지만 당전 가마까지 지키게 하는 것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전의 일이지만 광명인이 대구소에서 당전으로 파견 나온 군사에게 지시하여 한 도공을 감옥에 가둔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은 향리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었던 것이다. 대구소 군사들은 향리 수하이기 때문이었다.

“최 도공,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예. 나리님.”

“앞으로 당전 가마에서 일한 사람들을 받지 마시오. 이곳에서 받아주니까 당전에서 가마 일을 함부로 하는 것 같소.”

광명인에게 ‘신라 오랑캐’라는 욕설을 자주 들었던 도공이 세 명, 동료에게 주먹질을 했다는 별로 감옥에 갔다가 풀려난 도공이 한 명, 발물레를 고장 내고 뺨을 맞았던 도공 한 명이 최녹천 가마로 와서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대구소 향리의 배려로 온 사람들이지 최녹천이 부른 것은 아니었다. 대구소 향리는 그들이 당전 가마에서 모욕을 당하면서 배우느니 최녹천에게 보내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지는 향리님이 도공덜을 보내주어 가마 일을 갈치고 있을 뿐이지라.”

“감히 내가 월주청자를 가르친다고?”

“나리님보다야 못하졌지만요.”

“내가 당전에서 월주청자들을 품평할 때 최 도공은 잔심부름이나 하는 노비가 아니었는가?”

“그랬지라우.”

“최 도공은 실력에 비해 지나친 대접을 받고 있군!”

곽명인이 콧방귀를 끼었다. 자신이 자계 당전에서 상림호 부근의 월주가마로부터 나온 청자들을 품평할 때 최녹천은 가마의 허드렛일이나 돕는 바라지도공이었다고 비하했다. 바라지도공이란 도공 밑에서 잔일을 돕는 일꾼이었다. 최녹천은 당구들에게 붙잡힌 채 노비로 팔려가 가마에서 고생할 때의 일들이 떠올라 감정이 솟구쳤지만 목울대 밑으로 밀어 내렸다.

“지는 원래 노비가 아니었지라우. 당구덜한테 끌려가 노비로 팔렸지라.”

“월주가마로 팔려간 덕분에 여기서 청자를 굶고 있지 않소. 그러니 섭섭해 할 것은 없소.”

도공 한 명이 나서서 큰소리로 따졌다. 당전 가마에 있을 때 ‘신라 오랑캐’라고 모욕을 받았던 늙은 도공이었다.

“어만 소리 허지 마씨요! 당신이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신 어거지를 쓰는 것이요.”

“나는 너희 같은 오랑캐하고 다툴 시간이 없어.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저 오랑캐를 데리러 왔지.”

곽명인에게 지목당한 도공이 땅바닥에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최녹천이 말했다.

“하씨를 으째서 텔꼬 갈라고 허요?”

“발물레를 고장 냈으니 고쳐야 하지 않겠소.”

하씨가 말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가 고장 난 물레지라.”

“마지막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지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소.”

늙은 도공이 나서서 말했다.

“발물레를 고치지 못하믄 으쩍 것이요?”

“발물레 값을 내든지 물레값 대신에 감옥을 가야 하오. 사실 나는 발물레 값을 받으려고 온 것은 아니오. 고쳐놓기만 하면 더 이상 따질 걸 생각이 없소.”

곽명인이 억지를 쓰고 있지만 성격이 온순한 하씨는 대답을 못했다. 곽명인 말대로라면 발물레를 고장 낸 사람은 자신보다는 여러 견습생 도공들이었다. 그들이 발물레를 함부로 차다가 고장 냈지 마지막에 작업했던 하씨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곽명인은 최녹천 가마로 와버린 하씨에게 억지를 부렸다.

“발물레를 잘 수리한다면 바로 보내주겠소.”

“그라믄 지가 가서 수리해볼라요.”

최녹천이 하씨를 대신해서 곽명인을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명인은 최녹천의 제의를 거절했다.

“최 도공은 필요 없소. 나는 하씨에게 책임을 묻고 있소.”

곽명인이 손을 들어 올리자, 창을 든 군사 두 명이 달려와 하씨의 양 팔을 잡았다. 그러자 최녹천에게 가마 일을 배우던 도공들이 모두 나서서 하씨를 에워쌌다. 얼굴이 우락부락한 도공이 곽명인에게 주먹을 쳐들었다.

“오늘은 오랑캐 맛을 보여 줘야겠다!”

곽명인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당황했다. 위세를 부리러 왔다가 창피를 당하는 꼴이었다. 최녹천이 말했다.

“이러믄 진짜 오랑캐가 되지라. 참으씨요.”

“최 도공을 봐서 참겠소. 하씨는 데려가지 않겠소. 그러나 나는 향리에게 말해서 해결하겠소.”

“나리님, 고맙소.”

곽명인과 군사들이 자리를 뜨자 험악했던 상황은 바로 끝났다. 최녹천은 일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다. 청해진에 청자를 만들어 보내려면 곽명인과 다툴 시간이 없었다. 장보고가 청자항아리든 청자사발이든, 청자단지든 무슨

기물이든 만드는 족족 청해진으로 가져오면 고가에 사겠다고 했던 것이다.  
최녹천은 의기소침해진 도공들을 달랬다.

“쫓깐 참드라고잉. 대사님 무역선이 우리 탐진청자를 당나라는 물론이고  
왜나라 하카타까지 실고 간다고 헌께 인자 우리는 곧 부자가 될 것이오.”

“진짜 그라요?”

“이문이 생기믄 으디 나 혼자 묵겼소. 여그 깔끄막마다 자기 가마를  
한 개씩 지어 가질 것이오. 그라믄 모다 부자가 되지 않겠소?”

“사실인게라우?”

“대사님은 장사의 신이요. 산동반도에 사는 신라인덜의 소금과 솥을  
양주, 명주에 팔아 모다 부자가 되었던께라.”

“아이고메, 이라고 있을 때가 아니그만. 얼릉 한 개라도 더 맹글세.”

늙은 도공이 하씨를 데리고 동막으로 갔다. 최녹천은 창고에서 지난 철에  
만들어놓은 청자유약을 꺼내서 확인했다. 그러나 당전 가마에 있을 때  
당인에게 아부하는 도공을 두들겨 팼다는 별로 감옥에 갔다가 나온 도공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말했다.

“성님덜, 당인 놈이나 당구놈덜이나 다 같으요. 저 당인 놈을 소리  
소문없이 죽여볼믄 으쩔게라우?”

창술에 능한 미산포 군사였다가 낙마하여 발목이 부러졌던 도공도  
거들었다.

“우리가 심을 합치믄 당인놈 죽이기는 식은죽 묵기지라.”

그러자 말없이 진흙을 수비하고 있던 늙은 도공이 말했다.

“동상덜, 그런 소리 말어. 낫말은 쩌그 날아뎡기는 까마구가 듣는단 마시.”

“성님은 오랑캐란 소리를 듣고, 옥바가지를 뒤짚어썸시롱도 괴안찮으요?”

“동상, 괴안찮기는. 오랑캐 소리를 들을 때는 나도 속이 뒤짚어지제잉.”

곽명인에게 당전가마에서 막말을 듣는 등 자주 모욕을 당한 중년 도공이 말했다.

“저 당인놈을 죽여불른 속은 시원허겄제잉. 근디 우리가 당인놈을 진짜 이겨불라른 기가 맥힌 청자를 맹글어야 헌당께. 그라고 우리 꿈이 빛이간디. 청자를 풀아서 가마를 하나씩 갖는 것이 아닌가.”

곽명인에게 당장 몽둥이를 들고 쫓아갈 듯했던 분위기가 가까스로 가라앉았다. 최녹천은 도공들을 농막으로 불렀다. 그런 뒤 청자유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소상하게 가르쳐주었다. 청자의 핵심은 유약과 가마 불의 온도였던 것이다. 가마 불이 태토와 유약을 잘 녹여야만 기물 속에서 투명한 청록색이 나오기 때문이었다.



당인이 다녀간 뒤 최녹천은 은근히 걱정했다. 또 다시 최녹천에게 와서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청자 기물들을 만들기만 하면 모두 청해진에서 가져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전가마와 최녹천 가마의 도공들은 서로 경쟁하듯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했다.

한편, 장보고는 최고가 무역상품으로 청자에 이어 탐진에서 나오는 황칠을 더 추가했다. 물론 신라 땅에서 구운 소금과 솥은 여전히 인기 있는 상품이었다. 탐진 땅에서 자생하는 황칠나무의 수액은 금값과 엇비슷했다. 당나라 명주 일대에도 황칠나무가 있지만 황칠의 질은 탐진 것보다 훨씬 못했다. 명주의 황칠은 누리끼리할 뿐 금빛이 나지 않았다. 반면에 탐진의 황칠은 나무나 돌에 바르면 황금처럼 반짝였고, 그런 이유로 당나라 황제의 옥좌나 더러는 절도사의 호상에 칠해졌다.

장보고의 무역선이 청자와 황칠을 싣고 등주나 명주, 왜국 하카타에 닿으면 장사꾼은 물론이고 관리와 부자들이 줄을 섰다. 하카타에서는 관리와 부자들이 미리 선금을 주고 다음 무역선을 기다리기도 했다. 그만큼 장보고가 취급하는 무역품들은 부족해서 팔지 못할 정도였다. 장보고는 축적한 부(富)를 청해진 조성에 쏟아 부었다. 따라서 청해진은 방어시설인 내성과 외성, 치소와 객사, 활터와 무기고, 군관과 사병막사를 갖춘 궁궐 같은 성이 되었다. 그리고 가리포 뒷산에는 장보고의 무역선들의 무사항해를 비는 법화사가 행수별장 정년의 감독하에 창건되었다.

탐진 땅의 도공들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나아졌다. 도공들은 농사를 지을 때보다 수십 배의 이익을 챙겼다. 부지런한 도공들은 산골짜기로 들어가 각자 자기 가마를 갖게 되었고, 월주청자와

엇비슷한 기물들을 만들어 청해진으로 보냈다.

최녹천은 정 족장이 별세한 이후에는 그의 유언에 따라 정년으로부터 큰 가마를 물려받았다. 정 족장 집에서 토기를 굽던 도공들은 자연스럽게 고가로 팔려나가는 청자를 만들었다. 최녹천이 불대장 안씨 등에게 권유하기도 했지만 거내꾼 김씨 등이 스스로 청자를 만들겠다고 원했던 것이다. 정 족장이 별세한 지 8년 만의 변화였다. 마지막에는 발물레를 차던 토기장 조씨도 최녹천에게 고개를 숙였다. 더구나 광명인이 향수병에 시달리다가 명주 자계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최녹천은 어느 새 탐진에서 행수도공 대접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전가마에서 광명인에게 청자기술을 전수받은 도공들은 최녹천을 은근히 비하했다. 최녹천의 청자가 월주청자와 빗갈과 굽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최녹천의 청자는 빗갈이 투명헌게 개뿔게 보인단 말이여. 글고 월주 청자멩키로 굽이 넓어야 듚직허게 안정감이 드는디 최녹천의 굽은 가늘드그만.”

그러나 최녹천 가마에서 일한 도공들은 그 반대로 이야기했다.

“당전 가마에서 나온 청자 빗갈은 깨갓헌 맛이 읊어. 광명인 멩멩키로 응큼허고 꾸정꾸정허단 말이여. 탐진 산자락이나 바다멩키로 흰해야제.”

다만, 최녹천에게 배운 도공들 대다수는 청자 굽만은 광명인의 넓은 모양을 따랐다. 광명인의 굽 모양을 만들기가 쉽고 빠르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장보고는 당전 가마나 최녹천 가마의 청자를 가리지 않고 받아서



무역을 했다. 사실 도공들이나 차이를 알지, 보통사람들은 당전의 청자와 최녹천의 청자를 구분하지 못했다. 탐진에서 만드는 청자라면 최고품이 되었고, 따라서 대구소 앞 당전 주변에는 도공들의 큰 마을이 생겼다. 물론 최녹천 가마 주변 산골짜기에도 가마들이 들어서 봄가을이 되면 일시에 연기가 치솟아 온 산자락에 산불이 난 듯했다.

행수별장 정년의 소임은 청해진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다. 큰 장삿배인 무역선의 행수공사는 다른 별장들이 교대로 맡았다. 정년이 무역선을 타지 않는 것은 자신이 원해서였다. 장사는 원래부터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신라촌 신라인들의 소금과 숯을 당인들에게 팔아 이문을 남길 때도 정년은 무장으로 성공할 생각만 했지 장사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정년은 무역선을 타지 않기 때문에 탐진에 자주 들렀다. 아버지 정 족장이 남긴 재산을 관리할 필요도 있었고, 최녹천이 아버지가 남긴 큰 가마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점검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도 정년은 장보고 호위별장으로 천관산 연방죽 옆 마을에 갔다가 자신은 대구소로 오고 장보고는 청해진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정년은 최녹천에게 청해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거리낌 없이 들려주었다. 그만큼 최녹천을 오래된 친구처럼 믿기 때문이었다.

“내가 천관산 남쪽 마을에 간 이유가 있제. 거기 연방죽 옆에 대사님 부인과 따님이 살고 있거든. 따님이 으쩌든 왕비가 될지도 몰라.”

“왕비라고라?”

“우리덜이 왕으로 모실라고 헌 분이 시방 청해진에 와 있느디 대사님

따님을 왕비로 삼겠다고 대사님과 약속했당께.”

최녹천은 입술이 떨릴 정도로 놀랐다. 장보고가 왕의 장인이 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 족장 집에서 장보고의 부인과 딸을 봤던 것이 벌써 8년쯤 지났으니 딸의 나이는 십오륙일 터였다.

“그라믄 천관산에서 여그로 온 것인게라.”

“왕비가 될라믄 준비를 잘 해야겠제. 대사님이 직접 당부허실라고 가신 것이제. 대사님이 부인과 딸에게 몸을 잘 보존허고 있으라고 신신당부 하시드랑께.”

최녹천은 왕이 될 김우징이 청해진에 와 있다는 말이나, 장보고의 딸이 왕비가 될 것이라는 말을 도무지 믿지 못했다. 그러나 정년의 말은 모두 사실이였다. 장보고가 다스리는 탐진 땅은 태평했지만 서라벌은 왕이 시해당하는 등 살벌했다. 그곳에서는 왕위 쟁탈의 음모와 술수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태종무열왕의 9세손이자 할아버지 김주원의 증손자인 김흔과 사촌동생 김양의 권력투쟁이 극렬했다. 흥덕왕이 죽은 뒤 김균정과 김제룡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을 때, 김양은 균정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으나 제룡 일파의 기습을 받아 패배했다. 이때 그는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김제룡, 즉 희강왕은 곧 김명의 손에 시해를 당했다. 김명은 스스로 민애왕이 되어 김흔이 거느리는 군사의 보호를 받았다. 김흔은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경계했던 부귀영화만 좇아 다니는 위인이였다.

시해당한 희강왕의 아들 김우징은 청해진으로 피신했다. 김우징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면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겠다고 약속하고는 장보고에게 군사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장보고는 정년과 함께 천관산 남쪽에 사는 부인 위씨와 딸을 만나 이와 같은 사실을 전했던 것이다. 정년은 장보고의 지시만 떨어지면 청해진 군사 5천 명을 거느리고 서라벌로 진격할 마음의 준비를 다하고 있었다. 정년이 말했다.

“나는 청해진에 돌아가자마자 군사 5천을 거느리고 떠날 것인데 내 걱정 말드라고. 내가 훈련시킨 군사들은 정예군이라서 김양과 협력한다든 김흔의 10만 명 오합지졸은 상대가 되지 않을텐께.”

정년은 마치 김흔의 10만 군사를 물리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장보고가 김우징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것은 그와의 의리 때문이었다. 장보고는 무령군에 있을 때도 군사들에게 의리를 강조했던 것이다. 장보고가 서라벌에서 흥덕왕에게 청해진 설치와 사병 1만 명 주둔을 요청했을 때 다른 대신들과 달리 김대렴과 김우징은 적극적으로 장보고의 편에서 동조해주었던 것이다. 최녹천이 흥분을 가라앉힌 뒤 말했다.

“내가 도와줄 것은 읊겼는게라?”

“하하. 대사님이 최 도공에게 원하는 것은 청자뿐이지라. 궁께 오직 청자만 맹그시오.”

“대사님 덕분에 여그 탐진 도공덜은 모다 잘 살고 있소. 보다시피 미산포에서 여그 마실까지 가마가 몇 십개지라. 대사님이 안 겨시믄 어처케 이 많은 가마덜이 들어서 있겄소. 대사님 은혜는 바다맹키로

짚지라.”

최녹천은 대구소 향리에게 보내려고 준비해주었던 청자호리병을 정년에게 주었다.

“쌍계사 스님 말씀인디 내가 맹근 청자에서 좋은 기운이 나온당께 요걸 갖고 전장에 나가든 좋을 일만 생길 거 같아요.”

“최 도공 말대로 좋은 기운이 나온당께 허리에 차고 땡기겠소.”



정년은 바로 미산포로 떠났다. 그의 표정은 이야기할 때보다 더 비장했다. 곧 출정할 청해진 군사 5천 명과 김우징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계속>